



## 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
정홍근 심의관, 홍순복 서기관  
(044-200-2132, 2135)

## 이낙연 국무총리, 덩 중리(丁仲礼)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접견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0일(목) 오전 「덩 중리(丁仲礼, Ding Zhongli)」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, **한중 양자관계 강화 방안, 한반도 정세**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  - ※ 덩 부위원장은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제11차 합동회의(9.20) 참석차 9.19-21간 방한
  - ※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(06-) : 양국 국회 부의장이 매년 교차 방문 및 합동회의 개최
- 이 총리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복원된 **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** 개최를 환영하고 이번 회의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
  - 아울러 양국관계는 수교 26년만에 **무역규모, 인적교류, 경제협력** 등 다방면에서 전례 없이 급속한 발전을 보였으며, 앞으로도 **한-중 관계가 호혜적인 방향으로** 계속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
  - 이어 비록 사드배치로 양국간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었으나 교류가 복원되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, 한국 단체관광 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
  - 덩 부위원장은 양국관계에 대한 이 총리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, 사드문제로 인한 장애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으며, 중국은 좀 더 깊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방한 결과를 작성 후 지도자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

- 이 총리는 지난주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환담시 시 주석이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지지해준데 사의를 표하였으며, 중국이 계속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지지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.
- 덩 부위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국도 한국과 똑같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 하고,
  - 향후 평화구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, 관련국들이 각자의 입장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중점을 둔다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.
- 이 총리는 중국의 비약적인 과학기술발전을 평가하고, 중국과학원 대학교 총장이기도 한 덩 부위원장이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확대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
- 덩 부위원장은 양국간 경제·문화·과학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면서 양국관계 발전에 따라 과학기술 교류협력도 심화될 것이며, 한국정부도 양국간 과학기술협력과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계속 지원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.